한 국 가 정 과 학 회 지 3(2) : 135~153, 2000
Korean J. of Human Ecology 3(2) : 135~153, 2000

■연구논문■

동·서양 신발의 비교 연구*

권 현 주†

호원대학교 의류학과

A Comparative Study on Shoes in the East and the West

Hyun-Ju Kwon

Dept. of Clothing & Textiles, Howon University

Abstract

Shoes originated from the practical purposes: to protect feet from heat, cold, etc., and developed into various shapes, representing ornamentation and hierarchy. It was revealed that the aesthetic value was differently manifested from the practical one by different natural environments and socio-cultural phenomena of the times in the East and the West.

Comparing shoes in the East with those in the West, this study finds out the origin of shoes in the East and the West, and shapes and characteristics of shoes through the changes of times. Investigating various kinds of shoes in the East and the West, it also finds out the differences in status representations.

Shoes are classified into the following styles: in the West, (i) sandal in which the instep was almost exposed, tied with strips and fixed with band, (ii) closed shoes covering the instep, (iii) boots that arose above the ankle; in the East, (i) shoes without shoe neck (履), boots with shoe neck (靴), and wooden shoes (屐).

Status was also represented in shoes. In the West, the status difference was manifested mainly by jewelry or embroidery ornamentation. In particular, it was realized by the way they tied the shoes in Rome and by the length of the pointed front of the shoes in Romanesque and Gothic period. In the East, China, Korea and Japan, on the other hand, the use of shoes was regulated in detail by the official costume system, where material and color played an important role in marking the status.

KEY WORDS: shoes, sandal, closed shoes, boots.

*이 연구는 호원대학교 교내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Corresponding author : Dept. of Clothing & Textiles, Howon University
727 Wolhari, Impi, Kunsan, Chonbuk 573-718, Korea
Tel : 063-450-7632,
E-mail : hjkwon@sunny.howon.ac.kr

Ⅰ. 서 론

인간생활에 있어서 복식은 자연적·사회적 要件과 착용자의 다양한 位相에 의해 결정되는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산물로서 계급과 신분을 표현할 수 있다.

신발은 복식의 한 요소로 인류의 발을 보호하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에 의해 발생되어 장식성 및 계급성을 나타내며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었다. 이는 동양과 서양이라는 서로 다른 자연환경과 시대에 따른 사회 문화적 현상에 의해 미적 가치와 실용적 가치 기준이 달랐음을 예측하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서양 신발의 비교 연구를 통해, 동·서양 신발의 기원 및 시대적 변천에 따른 신발의 유형과 특징을 알아보고, 아울러 동·서양 신발의 종류와 계층표식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신발에 나타난 동·서양 문화의 차이에 대한 비교연구는 비록 복식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더 나아가 전체적인 동·서양 복식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지역적 범위로는 西洋과 東洋으로 大別하였으며, 西洋은 西洋服飾史에 등장되는 나라 즉, 古代 이집트를 비롯하여 메소포타미아·크레타·그리스·로마 및 유럽을 중심으로 하였다. 東洋은 한국·중국·일본의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東洋의 다른 나라들과의 비교연구에 바탕이 되고자 한다. 시대적 범위는 지역적인 광범위함으로 인해 古代에서 中世(15세기)까지로 한정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文獻的 考察로 服飾史에 관련된 동·서양의 史料와 論文들을 위주로 하여, 古書·繪畵·遺物報告書·박물관 및 전시 圖錄 등 各種 文獻자료와 사진자료를 참고로 하였다.

Ⅱ. 신발의 기원

1. 서양

약 5만년 전 무렵에 출현한 현생 인류는 짐승의 가죽을 이용하여 의복을 지어 입고 수렵과 어로생활, 채집을 위해 산야를 달리며 동시에 발 보호의 필요도 느꼈을 것이다. 수렵 문명은 최초로 발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 가죽을 이용했다. 그러나 뼈로 된 바늘과 돗바늘 등의 사용된 도구들을 통해서만 그러한 원시적 신발들을 신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데, 그 기원은 간빙기 말로 본다.(Boucher, 1987)

지구의 탄생이후 약 3만3천년 전의 구석기시대의 기후는 한랭 건조한 기후였으나, 1만년 전 빙하기가 종료되면서 기온이 상승되기 시작하였고, 인류는 자연과 투쟁하면서 獸皮를 몸에 걸치며 추위를 피할 줄 알았으며 따라서 이미 獸皮로 발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酒井憲一, 1995)

유럽의 수 만년 전 동굴 벽화에서는 짐승의 가죽으로 발을 감고 털이 달린 가죽 그대로인 한 갈래의 가죽끈으로 돌려 묶어 싸맨 신발의 형태가 발견된다.(駱崇騏, 1990)

구약성경에 따르면 수메르인들은 이집트인들처럼 맨발로 다녔다. 그러나 '나람-신'이라는 한 수메르인은 개선석비에서 샌달을 신었다(대략 기원전 2500년). 시리아의 발굴에서도 아마도 종교 제물인 듯한 진흙 모형이 나왔는데, 기원 전 3000년경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위로 뾰쪽하게 약간 끝이 구부려진 신발 형태를 하고 있었다.(Boucher, 1987)

청동기시대인 B.C. 1500~1100년의 덴마아크 유물에서 약 20×8 인치 크기의 두 개의 천이 발견되었는데 양발을 돌려 감싸기 위한 천으로 양쪽의 한끝은 식서(selvage)로 다른 한끝은 그저 풀어지게 놔둔 것이었다.(Payne, 1965) 이는 신발과 양말이 분리되기 이전 상태임을 보여준다.

또한 철기시대(B.C. 800~400)것으로 추정되는 부드러운 가죽으로 된 신발이 발견되었고,덴마아크의 지역에서 송아지가죽으로 만든 신발이 발견되었다.(Boucher, 1987)

샌들과 슈즈의 착용이 아열대지역에서 눈에 띄게 나타나는 때도 바로 이 시기이다.

2. 동양

중국에서는 原始 "鞋" 의 일종인 裹脚皮[1], 또는 獸皮

1) 裹脚皮 : 발을 가죽으로 돌려 감는다는 의미를 가진 原始鞋의 일종으로 털이 달린 가죽 그대로 발에 대고 쌌다는 의미에서 獸皮袜로 불리기도 하였다.

袜이 존재하였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이 신발은 정교하게 베어낸 짐승가죽을 발에 싸고 털이 있는 한 개의 가죽끈으로 돌아 싸맨 것으로, 추측하건데 이미 수 만년 이상의 역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있다.(駱宗騏, 1990)

신발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夏, 商, 西周의 冠服制度에서 보인다. 「周禮, 天官」에 "屨人은 왕 및 그 왕후의 服屨를 관장하였다. 赤舄, 黑舄, 赤繶, 黃繶, 青約, 素屨, 葛屨를 착용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

舄이 겹인데 비해 屨는 홑바닥으로 여름에는 葛麻를 사용하고 겨울에는 동물의 가죽을 사용하였는데 평시 착용하기에 적당하였고 특정한 鞠衣에 오로지 先蠶의식 때 착용하였으며 그 屨의 색상은 왕왕 치마 색깔과 같았다.(華梅, 1989) 이처럼 중국은 이미 夏, 商시대(약 B.C. 2000년경)부터 신발의 다양한 재료와 종류 및 용도와 신분에 따른 구분이 있었을 정도로 신발이 발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미 수 만년의 역사가 있는 신발이 중국에서 출토된 것은 중국의 서쪽 끝 신강지구 투르판에서 출토된 3,200년 전의 皮鞋이다. 이것은 높은 신목의 신발로서 위의 裹脚皮의 구성에 의거하여 생산된 것이며 이 刑制를 비교적 많이 보유한 것이다.(駱宗騏, 1990)

文獻에서 볼 수 있는 한국 最古의 신발은 扶餘의 革鞜, 馬韓의 草蹻, 草履, 草蹻蹋 등으로 가죽이나 풀을 이용하여 中國의 신발모양을 바탕으로 한국 신발의 모양으로 제작하여 신어졌다고 한다.(박경자, 1983)

따라서 동·서양의 신발의 기원은 공통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통된 최초의 신발은 아마도 신발만의 형태보다는 신발과 양말이 연결된 靴와 유사한 신발의 형태로 獸皮製였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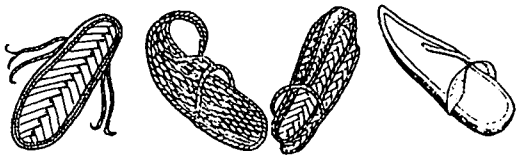
Ⅲ. 시대적 변천에 따른 신발의 유형과 특징

1. 西洋

1) 이집트의 신발

고대 이집트(Egypt: B.C. 3400~525)는 피라밋 구조를 이룬 엄격한 계급사회로서 이집트인들은 뜨겁고 건조한 자연환경에 맞게 대부분이 맨발이었고, 중왕국 이후부터 상류층에서 샌달을 신었다(圖1). 샌달(sandal)은 신왕국 시대에 특히 왕과 귀족들에 의해서 더 많이 사용되었다. 왕과 귀족의 것은 신의 앞 끝이 뾰족하게 올라간데 비해 일반인은 평범하였다. 남자의 샌달은 앞이 약간 뾰족하고 위로 올라갔는데 이는 아마도 동쪽지중해의 영향을 반영한 것이며, 투탄카멘의 샌달은 금으로 장식되어 있었다.(Payne, 1965)

왕의 신발 바닥에는 사람이 그려진 것이 있는데, 敵을 묘사한 것으로 이는 敵을 항상 짓밟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다.(丹野郁, 1973) 이외에 일부 특수층에서는 가죽끈으로 된 샌달을 신었다. 재료는 가죽이나 파피루스·아시·슈로드의 식물성섬유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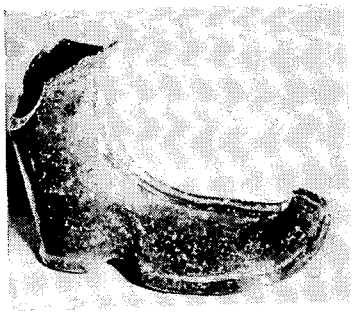


〈圖 1〉 이집트인의 샌달
(西洋服飾發達史-古代·中世編)

2) 메소포타미아의 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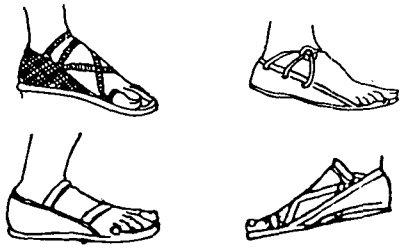
구약성경에 따르면 수메르(B.C. 3000~2108)인들은 이집트인들처럼 맨발로 다녔다. 그러나 '나람-신'이라는 한 수메르인은 개선 석비(대략 기원전 2500년)에서 샌달을 신었다. 시리아의 발굴에서도 아마도 종교 제물인 듯한 진흙 모형이 나왔는데, 기원 전 3000년경에 사용되었을 것 같으며, 위로 뾰족하게 약간 끝이 구부려진 신발 형태를 하고 있었다. 위로 뾰족하게 구부러진 이 형태는 원래 왕에게만 제한되었다가 공식적인 행사 복장에도 도입되었다. 이는 산악지대 사람들에게서 유래한 것 같고 이들이 그 것을 메소포타미아에 소개했으며, 그때부터 중앙아시아, 동부지중해 그리고 멀리 서쪽의 에트루리아까지 퍼지게 되었다(圖2, 3 참조).(Boucher, 1987)

앗시리아(B.C. 1200~540)의 왕과 상류계층의 남자들은 굽이 달린 샌달을 신었으며(圖4), 여자와 일반인 및 하류층에서는 모두 맨발이었다. 남자들의 샌달은 戰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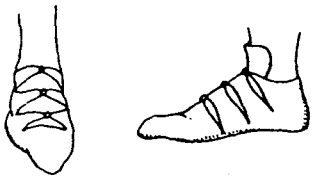
〈圖 2〉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굴된 앞 끝이 올라간 신발 모형, B.C. 13~12C
(A History of Costume in the West)

〈圖 3〉 메소포타미아 산악지대인의 앞 끝이 올라간 부츠, B.C. 12~11C
(A History of Costume in the West)



〈圖 4〉 앗시리아인의 샌달
(西洋服飾史)

〈圖 5〉 앗시리아의 앞 끝이 올라간 부츠
(A History of Costume in the West)



〈圖 6〉 페르시아인의 신발
(西洋服飾史)

를 위해 특별한 것이어야 했으며, 부츠(boots)도 함께 신었다.(圖5)

페르시아의 신발(圖6)은 구두창이 없고 발을 모두 감싸

는 형태의 모카신(moccasin)이 많은데 재료는 부드러운 가죽이나 펠트로 진주나 보석 장식을 하거나 수를 놓은 것도 있다.(정홍숙, 1997)

3) 크레타의 신발

크레타(B.C. 2800~1300)인들은 남녀 모두 실내에서는 맨발로 지냈으며 외출할 때는 크레타의 지형이 거칠었기 때문에 신발을 신었다. 단 어부들은 실외에서도 맨발이었다.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슬리퍼(slipper)형과 굽(heel)이 있는 구두(shoes)나 부츠(boots)를 신었다. 남자들은 모카신 형태로 발목주위에서 가죽끈으로 매는 반부츠나 샌달(sandal)을 신었다. 상류계층의 신발은 구슬로 장식된 가죽끈으로 발목주위를 매는 사치스러운 것이었다.(Bigelow, 1970)

신발의 재료는 염소·양·사슴 등의 부드러운 가죽을 사용하였다.(이정옥, 1987)

이러한 신발은 장식적이기보다 크레타의 비탈지고 메마른 울퉁불퉁한 땅에 필요한 기능적인 것이었다.

4) 그리스의 신발

그리스(B.C. 1200~146)인들은 일반적으로 모두 맨발이었으나, 文化가 發達하고 生活樣式이 복잡해짐에 따라 다양한 신발의 종류가 나타났다(圖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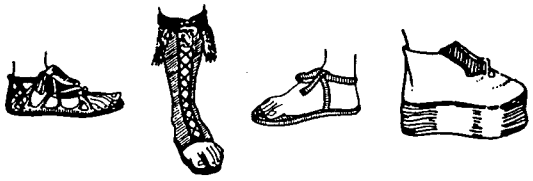
初期에는 主로 간단한 샌달을 많이 신었고(圖7-c), 샌달이 발달하여 크레피스(crepis)와 버스킨(buskin)이 나타났다(圖7-b). 크레피스는 男女 사이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었고 발보다 약간 넓은 두꺼운 구두창에 여러 가닥의 끈을 발등으로 끌어올려 묶음으로써 발과 발옆을 保護하도록 하였다. 또한 〈圖7-a〉에서 보이는 크레피스 발등 위의 긴 혀 모양의 裝飾은 自由人의 象徵이었다.

신발의 형태가 복잡해지면서 신분을 표시하는 기능이 부가되었는데 노예는 항상 맨발이었고, 철학자들은 장식이 전혀 없는 샌달을 신었고, 상류계급은 부드러운 가죽을 사용하거나 금으로 장식했다. 遊女들은 붉은 신을 착용했고, B.C. 6세기경의 詩人 사포(Sappho)의 기록에 의하면 샌들의 밑 가죽을 때로 붉게 물들이고 여기에 시리아人들이 만든 보라색 가죽끈을 장식품으로 부가하였다고 한다.(이현주, 1988)

이 밖에 코우더너스(cothurnus, 圖7-d)가 있는데 이것은 7.5㎝나 되는 두꺼운 콜크창이 달린 것으로 야외원형극장에서 연극을 상연할 때 멀리 위쪽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관객들에게 시각적으로 키를 커 보이게 하기 위해, 배우가 신기 시작한 후 일반인에게 유행되었다.(신상옥, 1991)

신발의 재료는 가죽, 펠트, 파피루스 등이었고 남자들은 가죽의 자연색이나 검정색, 여자들은 적·백·황·녹색 등의 고운 색상이 많았고, 이 위에 여러 가지색의 자수나 금으로 장식하여 복식 중 값비싼 종목으로 취급되었다.(정홍숙, 1997)

이와 같이 그리스는 신발의 재질·장식 등에 계급적인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a) crepis (b) buskin (c) sandal (d) cothurn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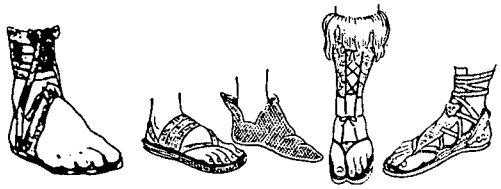
〈圖 7〉 그리이스인의 신발
(西洋服飾史)

5) 로마의 신발

로마(B.C. 750~A.D. 476)인은 정교한 신발을 만들었는데, 국가의 발달과 더불어 제정시대에 이르러는 신발의 종류가 매우 다양화되어 의복과 함께 착용자의 신분과 직업을 표시하게 되었다. 귀족이 복식 중에서 가장 비용을 투자한 것이 신발이라고 할 정도로 신발을 중요시하였으며, 맨발은 노예의 상징이었고, 시민은 실내에서도 맨발인 것을 혐오스러워 했다.(丹野郁, 1973)

그리이스인들이 샌달을 많이 신은데 비해, 로마에서는 발목까지 덮는 반구두인 칼세우스(calceus)가 인기가 있었다(圖8-a). 질이 좋은 가죽으로 만든 칼세우스는 두 개의 끈으로 발목부위를 칭칭 감아 앞쪽에서 매었다. 착색된 칼세우스는 부유층에서 신었고 신발에 보석장식을 한 칼세우스 파트리시우스(calceus patricius)는 네로 황제가 신었다는 기록이 있다.(신상옥, 1991)

신발의 종류는 많지만 대체로 슬리퍼형, 샌달형, 부츠형의 3개로 대별된다(圖8). 박시아(baxea)는 슈로의 葉으로 엮은 이집트의 샌달과 닮았고(圖8-b), 농민과 철학자가 신었다. 크레피다(crepida)는 그리스의 크레피스이고(圖8-e), 일반시민의 신발인 속스(soccus)는 슬리퍼형에 뒤꿈치가 있는 간단한 것이다(圖8-c). 캄파구스(campagus)는 앞중앙에서 끈으로 묶게 되어있는 부츠(圖8-d)인데, 귀족의 것은 화려한 색상에 동물의 머리나 팔다리가 장식되어 있는 것도 있었다.(丹野郁, 1973) 〈圖9〉는 로마에서 오랜 동안 가장 일반적으로 착용된 샌달인 카바티나(cabatina)이며 소가죽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된다.(Boucher, 1987)



(a) calceus (b) sandal (c) soccus (d) campagus (e) crepida

〈圖 8〉 로마인의 신발
(西洋服飾史),
(西洋服飾發達史-古代·中世編)

〈圖 9〉 로마인의 샌달, A.D. 1C
(A History of Costume in the West)

재료는 가죽, 울, 실크 등을 사용했고 귀족도 여기에 황금, 은, 보석으로 사치스럽게 장식했다. 또한 신발의 끈을 묶는 방법이나 장식 등의 정교함에 의해 사회적 신분을 표현했고 창이 높은 신발은 배우나 귀족중심으로 신겨지다가 점차 일반화되었다.(정홍숙, 1997)

로마는 신발의 재질, 묶는 양식이나 색상, 장식 등의 정교함에 의해 사회적 신분이 나타났는데 귀족 및 상류층의 신발은 매우 화려하였으며 신발의 높이도 높았다.

6) 비잔틴의 신발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비잔틴(A.D. 395~1453)의 신발은 샌달, 구두(shoes), 부츠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끈으로 엮는 샌달은 종교인과 평민이 신었으며, 〈圖10-a〉는 보석 버클로 연결시켜 묶어 매는 샌달이다. 6세기경에는 힐(heel)이 없고 부드러운 가죽이나 직물로 만든 구두를 신었는데, 발목에 가죽끈이 있는 것은 왕족들이 신었다(圖10-b). 7~9세기경에는 하류계층에서도 구두를 신었다. 부츠는 발목·종아리 중간·무릎 아래 등 길이가 다양하며 부드러운 가죽으로 만들었으며, 황제나 집정관 등 지위가 높은 사람과 군인들이 신었다(신상옥, 1991).

신발의 색상은 일정한 규제 없이 선호하는 색으로 만들어서 색상이 다양했는데, 붉은색이 가장 많이 쓰였고 다음으로 자주색, 빨강색, 검정색, 파랑색 등이며, 왕실에서는 자주색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금사로 수를 놓거나 보석 장식을 하였다.(신상옥, 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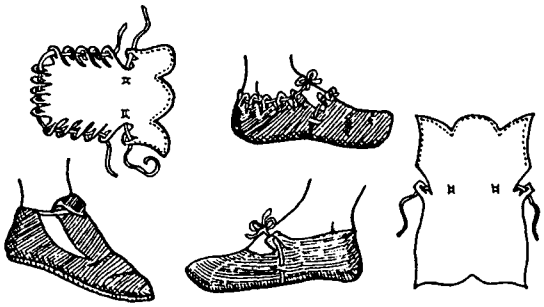
〈圖10-d〉는 靑色 가죽으로 만든 승려의 구두인데, 金칠한 가죽 밴드를 부착하고 있고 〈圖10-e〉는 장미색 가죽구두로 11세기의 황제 신발이며, 보석이 장식되어 있다.

(a) 샌달 (b) 구두(6세기) (c) 부츠 (d) 구두 (e) 구두(11세기)

〈圖 10〉 비잔틴의 신발(西洋服飾史), (西洋服飾發達史)

〈圖11〉은 중세 전반 (A.D. 5~10세기)의 서유럽의 서민들이 착용했던 신발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한 장의 가죽을 끈으로 엮어 착용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데, 이는 당시 비잔틴의 서민 신발과 유사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비잔틴은 보석이나 금, 자수장식 등 신발의 장식에서 그 계층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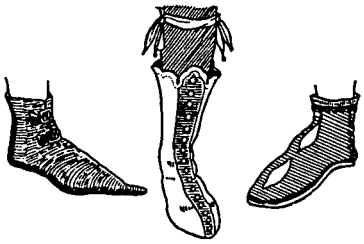
〈圖 11〉 중세 전반기의 시민 신발, A.D. 5~10C
(西洋服飾發達史)

7) 로마네스크시대의 신발

로마네스크(Romanesque : 11~12세기)시대의 신발은 近世와 같은 구두의 形式을 낳기 위한 과도기였다고 볼 수 있으며 種類도 많아서 목이 긴 것, 짜 올려진 것, 버클 달린 것 등이 있었다. 그러나 그 모양은 이 시대를 특징 지워주는 독특한 디자인이 따로 없고, 11世紀末 頃부터, 앞이 뾰족한 구두가 유행하게 되었다. 구두와 부츠형의 신발을 주로 신었으며, 영국 귀족층이 신은 구두에는 구두창이 없고 발잔등 부분은 베어낸 것 같은 모양에 무늬가 새겨져 있는 것이 있으며 발목 길이와 종아리 길이의 부츠가 있었다(圖12 참조).

또한 나무로 만든 패튼(patten :圖13)을 이때부터 신었는데, 패튼은 보통의 신발 위에 덧신어서 부드러운 가죽신발을 보호하였고 처음에는 앞 부리가 둥근 타원형에 가죽끈이 달린 모양이었으나 후기에는 크랙코우처럼 끝이 뾰족한 형태가 되었다.(신상옥, 1991)

이 시대 신발의 재료는 보통 가죽인데, 특히 귀족의 신발은 사치스러워 좋은 가죽 이외에 실크나 벨벳 등에 금실과 은실 등을 넣어 짠 교직물이 이용되었으며 여기에 진주, 보석을 달거나 자수로 장식을 하기도 했다. 또한 동방에서의 실크수입과 모피의 자유로운 사용으로 더욱 화려하게 발달하여 유럽 신발의 질이 이시기에 급속히 향상되었다.(정흥숙, 1997)



〈圖 12〉 로마네스크 시대의 신발
(西洋服飾發達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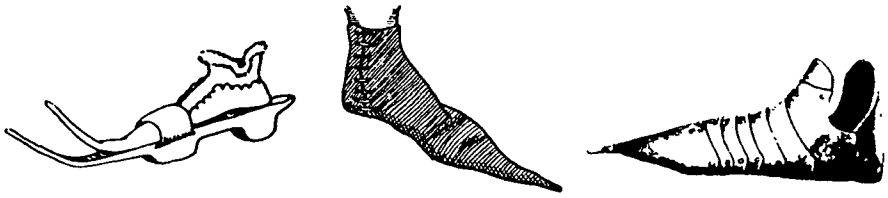
8) 고딕시대의 신발

고딕시대(Gothic: 13~15세기)의 신발은 로마네스크의 감각이 그대로 반영되어 발달한 것으로 발목길이를 많이 신었는데, 상류층으로 갈수록 앞 부리가 뾰족하고 길었다. 대표적인 신발인 크랙코우 또는 뿔렌느(poulaine)의 뾰족한 앞 부리(圖13)는 길이가 계급을 나타내었으므로 경쟁적으로 지나치게 길어져서 영국에서는 법령으로 길이를 규제한 일도 있었다. 왕은 2피트, 중산층 이상은 1피트, 일반인은 6인치까지 허용한 것이 그것이다.(신상옥, 1983)

신발의 뾰족한 끝은 뱀의 꼬리, 물고기 꼬리 등의 기발한 형이 유행했는데, 이는 발달된 세공 기술을 최대로 발휘한 것이었다. 크랙코우라는 이 신발은 발목을 끈으로 묶는 간단한 슬리퍼형과 하프부츠(half boots), 앵클 부츠(ankle-boots)형이 있는데 종아리를 덮도록 접어 커프스를 댄 것도 있다.

갑옷과 함께 신는 신발도 유행에 따라 앞 끝이 뾰족하고, 활동성을 고려하여 비늘처럼 설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圖13-c). 뾰족한 신발의 형태는 1450년경부터 정상적인 형태로 환원되었고 앞 부리가 둥글어졌다.(신상옥, 1991) 농부들은 부드러운 가죽 boots를 신고 活動을 하였고 여자들은 긴 boots는 신지 않았다.(이혜영, 1984)

이 시대에는 복장보다도 신발을 더 중요시하여 제작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으며 재료는 부드러운



(a) 크랙코우와 패튼 (b) 크랙코우 (c) 갑옷 신발

〈圖 13〉 고딕시대의 신발(西洋服飾史), (西洋服飾發達史)

가죽, 펠트, 벨벳, 브로케이드, 두꺼운 실크 등이 이용되었다. 비오는 날에는 바닥에 코르크가 붙은 가죽 신발이나 또는 타원형의 나무로 만든 패튼을 신었다.(정흥숙, 1997)

이 시대는 신발의 뾰족한 앞 부리의 길이로 계층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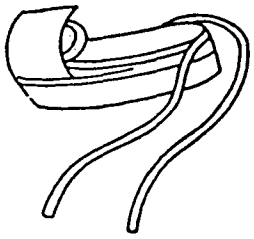
2. 동양

1) 中國의 신발

漢六朝時代의 主된 신의 종류는 履·舄·鞾이다. 履는 원래 "디디다, 밟다"의 의미로 履物類 전체를 나타내고, 독특한 형상은 없는 것 같다.(杉本正年, 1981) 다만 신의 일반적 意味를 가져서 鞋, 屨, 屐, 屣, 蹻, 沓 등 모든 短靴의 신을 말하는 것으로 長靴의 靴와 구별된다.(李如星, 1945)

시대별로 좀더 상세히 살펴보면, 周代의 「周禮·天官」에 "구인은 왕 및 그 왕후의 의복과 신을 관장하였다. 赤舄, 黑舄, 赤繶, 黃繶, 青約, 素屨, 葛屨를 착용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음으로 면복을 착용할 때에는 赤舄을 신었음을 알 수 있다. 제후와 왕은 赤舄을 함께 사용하였는데 3등 가운데에 赤舄이 가장 높고 그 아래는 흰 것과 검은 것이었다. 왕후의 舄의 착용은 玄, 青, 赤의 3등의 순서였다.(周錫保, 1984) 舄은 祭服 전용의 신으로 「揚子方言」에 "中有木者 謂之複舄"이라 하여 履는 單底이고 舄은 複底임을 나타내었는데 형태에 있어서는 履와 별 차이가 없다(圖14).(杉本正年, 1981)

春秋戰國時代 履物의 종류로 상류사회에서는 舄, 屐(木台를 붙인 履), 絲履(비단으로 만든 얇은 鞋), 鞾(皮革製의 靴) 등이 착용되었는데, 일반서민은 麻履, 草履, 木履 등을 착용하였다.(杉本正年, 井上泰男, 松本敏子, 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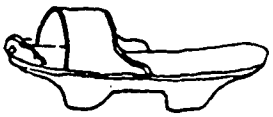


〈圖 14〉 舄 (東洋服裝史論攷-古代編)

屐은 나무로 만든 것으로, 2개의 齒(굽)가 있으며 古代에는 貴賤의 구분 없이 착용하였다.(王字淸, 1976) 「三才圖會」에 의하면, 春秋時代에 유행하였고 그 형태는 〈圖15〉와 같다.

後唐馬稿의 「中華古今注 卷上」에서 보면, 靴는 胡服에서 유래된 것으로 趙武靈王이 처음 착용하기 시작하였으며 靷가 붙어있어 騎馬에 편리한 것이다. 趙武靈王이 사용하던 靴는 신목이 짧았으나 뒤에 馬周가 신목을 길게 고쳐 동여매게 하였으며, 동여맨 것이 뒤에 靴帶로 발전된 것 같다.

秦漢시대에 이르면 絲綢之路로 명명되는 실크로드를 따라 중앙아시아와 문화 교역 등이 활발해진다. 이시기의



〈圖 15〉 屐(三才圖會)

신에서 중요한 것은 高頭, 또는 歧頭의 비단신(絲履)으로 위에는 여러 가지 꽃무늬를 수놓았고 혹은 葛麻로 만든 것은 方口方頭의 낮은 布履였다.(華梅, 1989)

〈圖16〉은 馬王堆 漢墓에서 출토된 비단신(絲履)으로 발끝이 평평하게 되어 위로 꺾여 굽혀져 있는데 앞 끝이 두 갈래로 갈라진 최초의 歧頭履로 발등의 덮는 부분이 얕은 형태이다.

〈圖 16〉 馬王堆 漢墓 출토 絲履
(中國古代服飾硏究)

晋 이전에는 婦女는 신발부리가 둥근 圓頭履를 신고, 남자는 신발부리가 네모난 方頭履를 신었는데 晋시대에는 男女 모두 方頭履를 신었다(圖17).(袁杰英, 1994)

南朝 女子들의 신발은 分絲, 錦, 皮, 麻 등의 재료에 따라서 분별하여, 위에는 꽃을 수놓고, 구슬을 장식하고, 색을 칠하였다.(華梅, 1989) 宮女들은 皮履를 신거나 또는 絲履를 신고 일반인들은 絲 또는 麻로 만든 신발을 신었으며 그 형식이 매우 다양하였다.

北朝의 여인들은 靴를 착용하였고, 木屐이 널리 이용되었다.(周錫保, 1984)

隋代에 이르면서 常服에 六合靴를 착용하였고 「舊唐書」 輿服志에는 唐代 官吏의 신에 대한 기록이 있어[2] 常服에는 靴, 朝服, 公服에 履가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시기는 圓領과 함께 烏皮革(圖18)의 착용이 보편적이었다. 농민이나 노동자는 草莖으로 짠 鞋, 芒履나 草鞋를 착용하였다.(杉本正年, 1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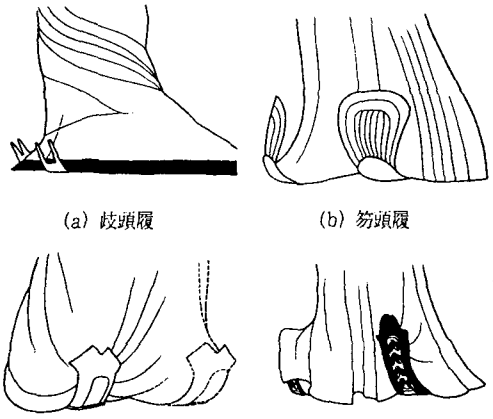
唐代婦人의 신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靴, 履, 鞋 등이며 鞋는 재료에 따라 皮, 麻, 線, 錦, 鞋등의 4종류로 나뉘었다. 반면 北朝의 胡俗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隋代人들의 靴의 착용이 많았으며(莊甲, 1994) 履는 그 신부리가 高頭, 平頭, 小頭, 云形, 花形, 重台, 如意 등의 여러 양식으로 나뉘었다.(楊志謙, 張臣杰, 杭關華, 王名时, 1979) 당대의 신발 양식은 남·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여자 신 가운데 鳳頭高翹의 신발 양식이 많았으며(圖19), 신발 윗면에는 꽃을 직조하거나 아니면 수를 놓았다.(華梅, 1989)

〈圖20〉의 雲頭錦鞋는 신강 투루판 아스타나 墓에서 出土된 唐代 귀부인의 신인데, 黃, 藍, 綠色의 宝相花 문양이 織成된 錦織의 신발로 앞 끝이 구름모양(雲頭)

〈圖 17〉 투르판 아스타나 출토 方頭履, A.D. 327~460 (吐魯番 博物館)

2) 衣裳有常服公服朝服祭服四等之制 平巾幘年角筩蠶紫衫 白袍靴起梁帶..... 是爲常服..... 朱衣裳素革帶烏皮 履是爲公服.

〈圖 18〉 烏皮靴(隋唐文化)



(a) 歧頭履 (b) 笏頭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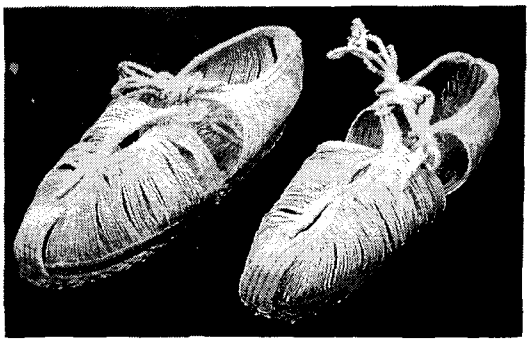
(c) 高齒履 (d) 重臺履

〈圖 19〉 履(中國古代服飾硏究)

을 나타내며 신발의 가장자리에는 끈이 붙어 있다.

〈圖21〉의 麻鞋 역시 신강 투루판 아스타나 墓에서 발견된 것인데, 唐代에 많이 착용된 신발로 매우 세밀하게 엮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바닥은 麻繩編이고 신발의 면은 絲繩으로 이루어진 세밀한 雙線鞋이다.

〈圖 20〉 雲頭 錦鞋(吐魯番 博物館)



〈圖 21〉 麻鞋(吐魯番 博物館)

宋代의 여인들은 전족의 풍습이 만연하였으며 대부분이 革鞋 등의 平頭, 圓頭鞋를 착용하였다.(華梅, 1989) 歌舞女子들은 靴를 착용하고 宮人 또한 紅色의 織錦의 靴를 착용하였다.(周錫保, 1984)

元시대에 士人 및 庶人들은 朝靴, 花靴, 皂靴, 釘靴, 跡靴, 平頭直尖靴, 鞠靴, 靷靴, 皮靴, 毳靴, 雲頭靴, 高麗式靴, 鵝頂靴, 鵠觜靴 등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또 絲鞋, 棕鞋, 丸 鞠, 麻鞋, 草履 등도 있었으며, 신발에 花樣飾을 금하였다. 宮人 및 貴婦人들은 紅靴를 착용하였다.(任明美, 1992)

明 나라 때 일반백성의 履는 여러 종류의 재료와 양식이 있었는데 革靴, 布低緞面便靴 등이 기록에 남아있다. 강남인은 대부분 蒲草鞋를 신었고, 북방인은 牛皮直筒靴를 신었다.(華梅, 1989) 明代의 命婦 冠服으로 金장식이 있는 舄이 착용되었으며 왕후의 常服으로도 여전히 舄이 착용되었다.(周錫保, 1984) 明代의 평민 여자들의 기본적인 양식은 唐, 宋의 옛 제도를 따라 민간에서는

纏足이 유행되고, 궁정內에서는 弓祥鞵를 신고 노인들은 平底鞋를 착용했다.(袁杰英, 1994)

2) 韓國의 신발

扶餘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은 「三國志 魏志東夷傳」에 "衣尙白 白布大袂布袴 履革踏"라 하여 革踏을 신었음이 나타나 있으며, 「後漢書」, 東夷 韓條에서 "草履", 「晋書 四夷 馬韓條」에 "草蹻", 「通典」에 "草履"가 나와있어, 삼국시대 이전에 가죽과 草를 재료로 한 履를 신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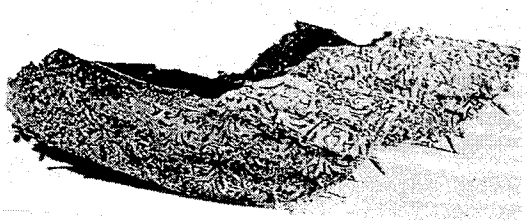
삼국시대로 내려와 고구려 때는 「北史 列傳」, 「隋書 東夷傳」, 「舊唐書 東夷傳」 등에 "黃革履"가 나타나 있고, 「舊唐書 志音樂」에는 "赤皮靴 烏皮靴"가 보여 靴와 履가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 古墳壁畵를 통하여 형태를 보면, 무용총 벽화에 나타난 신발(圖22)이 履 형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으로 요즈음 신발과 유사하다. 履의 다른 한 형태는 通溝 三室塚 제2실 西壁 札甲武人의 신발(圖23)로 운두가 얕고 코가 뾰족하며 신창에는 못을 박아 스파이크 식으로 되어 있는 양식도 볼 수 있다. (유희경, 김문자, 1999)

〈圖 22〉 무용총 인물도의 履(고구려 고분벽화)

〈圖 23〉 스파이크식 金銅履(한국복식문화사)

(a) 쌍영총 (b) 매산리 사신총

〈圖 24〉 靴(한국장신구미술연구)



〈圖 25〉 무령왕릉 출토 金銅履(한국복식문화사)

〈圖 26〉 조선시대 靴子(澹人服飾美術館)

靴(圖24)의 형태는 梅山里 四神塚과 雙楹塚, 무용총 인물도에서 볼 수 있는데, 靴만 따로 그려 놓은 경우도 있고 인물상이 착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圖24-a〉는 조선시대 靴子(圖26)와 유사하다.

백제의 신발로는 「三國史記 古爾王條」에 "烏韋履"와 "악공이 皮履를 신는다"고 나와 있으며, 公州 宋山里

武寧王陵에서 출토된 王과 王妃의 金銅履(圖25)가 있는데, 표면은 忍冬唐草文을 透作한 金銅板을 씌우고, 바닥에는 스파이크 같은 尖形金具가 부착되고 내부에는 布나 가죽을 댄 흔적이 있다.

新羅의 신발로는 "洗"라는 것이 「梁書」와 「南史」에 나타나는데 이는 靴를 나타낸 것이다. 「三國史記」 職官條에 "麻履, 踏"이 보이고, 「三國史記」 色服志 新羅條에 "皮絲履, 罽羅履, 繡羅履, 總羅履", 「韻玉」에 "絲鞋", 「三國遺事」에 "芒鞋"등이 보인다.(유희경, 김문자, 1999)

통일신라시대의 신발은 興德王 服飾禁制에 의하면, 靴는 男子만 신고 履는 男女 共用이었음을 볼 수 있으며, 또한 新羅 古墳에서는 많은 金銅履가 出土되어 당시 왕실이나 귀족의 短鞋形의 신발 형태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金銅履들은 高句麗 古墳壁畵의 바닥에 못이 박힌 신발이 그려진 것이나 백제의 고분에서 금동리가 출토되는 등 三國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이들 飾履는 견고하고 정밀한 것으로 祭典이나 儀式 때 잠시 사용했거나 단순히 부장품으로 제작했을 가능성도 있다.

高麗時代는 「高麗史」나 「高麗圖經」을 參考로 당시의 신발을 살펴보면, 記錄에 처음 나타나는 冕服의 신발은 穀宗朝 「詳定禮文」에 "赤舄"이 있고, 이것이 恭愍王代에는 赤履로 바뀌었고, 朝服에 있어서는 黑舄이 사용되었으며, 王妃의 신발은 青舄이었다. 百官의 신발은 「高麗史 輿服志」에 舄이 기록되어 있는데 恭愍王代에는 黑履로 바뀌었다. 하층 계급에서 사용된 신발은 「宣和奉史 高麗圖經」에 "革屨·草履·皂履·革履·烏革鈴履·烏革句履" 등이 나와 있어, 당시 하층민은 주로 履類를 신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草履之形前低後昂 形狀詭異 國中無男女少長悉履之"라 하여 전국에서 男女老少 모두 앞쪽이 낮고 뒤쪽이 높아 모양이 괴이한 草履를 신었다 한다. 따라서 革履는 주로 公席에서 신는 것이고 평상시에는 거의 草履를 많이 신었다.(김지희, 1988)

고려시대에 비해 매우 엄격해진 조선시대의 신분제도는 복식의 엄격한 계층분화를 가져왔으며, 이 신분제도는 신발에까지 영향을 주어 형태나 재료 면에서 신분에 따라 착용하는 신발의 구분이 뚜렷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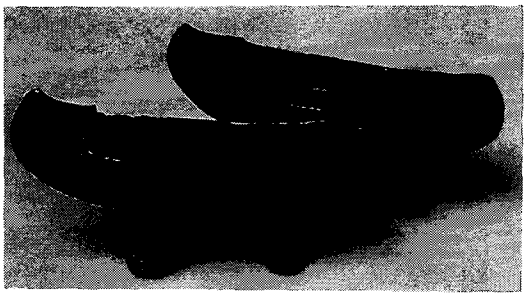
世宗實錄에 의하면, 世宗 8年(1426) 1月에 司憲府에서 啓하였는데 "계급에 따라 의복제도는 형식이 정해졌으나 신발에 대해서는 제정되지 않아 工商公私賤隷까지 靴를 신고 參外 및 無識人도 套를 신어 上·下階級의 구별이 없다"고 하여 禮曹에서 套·靴·皮草·鞋를 금지하였다. 또한 同王 11年 2月에는 司憲府에서 公告하였는데 "…庶人 및 工商 賤隷는 斜皮로 된 신과 비단으로 된 衣服을 禁한다"라고 하였다. 同王 28年(1446) 5月에는 議政府에서 服色詳定條件을 啓함에 있어 제2조에 "流品朝士 및 有蔭子弟外에는 狹皮靴, 唐皮草鞋를 신지 못하고, 일반 여인은 紗羅綾緞鞋를 신지 못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당시에 狹皮靴나 唐皮草鞋, 紗羅綾緞鞋 등이 일반인 사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百官은 「經國大典」에 의거하여보면 朝服과 祭服에 黑皮鞋를 신고, 公服에는 黑皮靴, 堂上官의 常服에는 狹金靴를 신고, 鄕吏는 公服에 黑皮鞋를 신고 常服에 皮鞋를 신었는데, 狹金靴는 黑皮靴의 바닥에 특별히 징을 박은 것인 듯하다.(석주선, 1982)

舄을 제외한 신발類에는 皮靴와 鞦鞋가 있다. 皮靴는 그 재료에 따라 黑麂子皮靴, 黑鹿皮靴, 黑斜皮靴, 黑斜皮套鞋 등으로 구분되며 鞦鞋는 모두 黑熊皮를 쓰고 있다. 黑麂皮靴는 글 뜻으로 보아 노루가죽신인데, 袞龍袍에 대응하고 있어 袞龍袍를 착용하는 모든 행사에 보이며, 誕日과 正朝·冬至 등 恒例進上에도 들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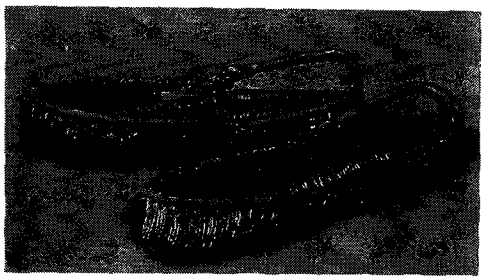
鞦鞋는 字意로 보아 마른신의 일종이다. 黑麂子皮靴보다 격식이 낮으니, 가장 일상적인 신발이었던 것 같다. 이외에 黑斜皮靴는 최고급인 흑담비 가죽을 쓴 것인데 端午進上과 國婚衣襨에 들어 있다. 黑斜皮를 쓴 신발類는 이 밖에 套鞋가 따로 있어 大君과 儀賓嘉禮服에 보인다. 套鞋는 본시 禦寒用 덧신을 말함인데 大君·儀賓 嘉禮服에만 이것이 들어 있으니 혹시 덧신과는 다른 刑制의 신발인지도 모르겠다.(李京子, 1985)

〈圖 27〉 조선시대 唐鞋(澹人服飾美術館)

상류층 女人들은 宮中에서 사용되었던 唐鞋·雲鞋(圖27)의 재료를 달리하여 사용하였고 비오는 날을 위한 징신(油鞋), 나막신(木履, 圖28) 등이 사용되었다. 서민들은 草履(짚신)·麻履(미투리) 등을 착용하는데, 좀더 고급스러운 麻履(圖29)는 상류층에서도 사용하였고 서민들이 사용하는 짚신은 거칠고 간단한 것이었다.



〈圖 28〉 나막신 (木履)(澹人服飾美術館)



〈圖 29〉 미투리(麻履), (澹人服飾美術館)

3) 日本의 신발

일본은 중국과 한국에 비해 신발의 출현이 늦은 편으로, 「魏志倭人傳」에 의하면 橫幅衣 착용과 양잠의 기술은 기록되어 있지만 신발의 기록은 없이 모두 맨발이라 되어 있어 3세기말에도 일본에서는 신발이 착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일본에서 최초로 나타난 신발로는 고분에서 출토된 다게다(田下駄)가 있다. 이것은 논에서 사용하는 일종의 경작용구로 수렵을 생활수단으로 하였던 縄文토기시대를 지나 도작시대인 弥生토기시대의 고분에서 石製의 다게다(田下駄)와 신발의 모조품이 발굴되었다. 또한 弥生式文化 後期의 靜岡縣 登呂遺跡에서 다수 발견된 杉材의 田下駄가 발견되었고 山木에서는 大足이라 부르는 代踏下駄가 발견되었다. 이것이 일본에서의 신발의 유물출현 시작으로 볼 수 있다.(조선희, 1997)

고분시대에는 기마 민족 문화의 도래에 의한 胡服 樣式의 영향으로 北方系 의복이 착용됨으로써 북방계 신발인 靴를 신었는데, 이것은 하니와에 착용된 靴로 그 착용 실태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외에 履는 남녀 모두 운두가 낮은 履가 많으나 武人像에 보이는 것은 가죽으로 된 半長履로서 중국에서는 韡라고 부른다.(杉本正年, 1981) 〈圖30〉은 성덕태자의 모습으로 앞 끝이 올라간 鞋를 신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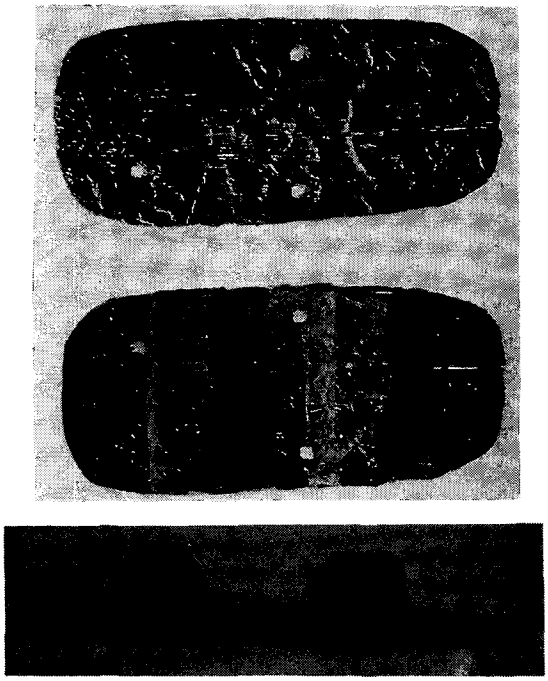
飛鳥시대의 복식에 대하여 「隋書」 왜국전에 「男子의 신은 履形의 칠을 한 木履로 발에 맨다. 서민은 대부분이 맨발이며, 金銀 장식을 못한다.」고 되어있다.(井筒雅風, 1986) 養老衣服令(718年)의 條文을 보면 먼저 황태자는 禮服에서 錦襪에 烏皮舄을 신는다. 이 烏皮舄은 검은색 皮製로 앞발부분이 높은 형의 禮裝用의 沓을 말한다. 親王과 諸王 또한 烏皮舄을 착용한다. 日常에서는 草鞋 착용으로 하였다.

〈圖 30〉 성덕태자의 鞋(奈良朝服飾の 研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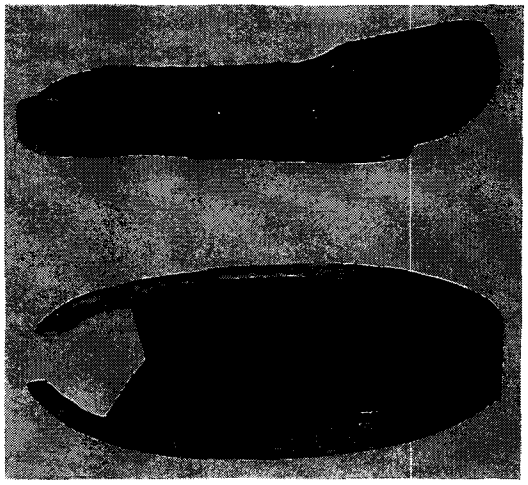
養老衣服令에 보이는 女子의 禮服에 관한 條文을 보면 內親王은 錦襪에 綠舄을 착용하는데 金銀으로 장식한다. 이 綠舄에 대해서는 男子禮服의 舄은 烏皮이지만 女子의 舄은 烏皮가 아니다. 또 女王과 內命婦의 1位도 禮服에서와 같이 金銀으로 장식한 綠舄을 착용하고 內命婦의 5位 이상은 銀으로 장식한 烏舄을 착용하였다고 한다. 이외 一品이하 ~ 五位 이상은 舄을 신지 않고, 6位 이하 ~ 初位 이상은 烏皮의 履를 착용하였다.(太田臨一郎, 平成元年)

또 女子에게는 없지만 男子에는 文官과 武官의 구별이 있는데 남자 武官은 禮服에서 烏皮靴를 착용하고 衛府의 督과 佐는 朝服으로 烏皮의 履를 착용하는데 오늘날의 직위로는 督은 長官, 佐는 次官급에 해당한다. 이것은 文官의 禮服으로 舄을 착용하고 朝服에서는 履, 武官의 禮服用으로 靴 그 외 직급이 낮은 武官은 履를 착용함으로써 文官과 武官의 구별과 아울러 上下를 구별짓고 있다. 하지만 日常에서는 문·무관 모두 草鞋를 착용한다.

일본에 한국과 중국의 문호가 전파됨과 동시에 豪族들 사이에 금속제의 신발이 사용되기 시작하고 服制가 시작된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대부분 맨발이거나, 게다(下駄, 圖31), 草履, 草鞋類, 木屐(圖32) 등이 착용되었다.(조선희, 1997)



〈圖 31〉 三原寺 출토 下駄(奈良朝服飾の 硏究)



〈圖 32〉 木履(奈良朝服飾の 硏究)

나라시대 신발은 정창원 소장의 8세기 중엽의 繡線鞋가 있다(圖33). 이 신발은 겉감은 빨간색에 花鳥文, 안감은 靑地錦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국의 투르판 아스타나 고분에서 발견된 〈圖20〉의 錦鞋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唐과 日本의 궁정복식의 강한 연계성이 확인된다.(松本包夫, 1984) 이밖에 나라시대 궁정복식의 신발로 착용된 革製의 履(圖34)와 錦履(圖35)가 있다.

〈圖 33〉 繡線鞋(奈良朝服飾の 硏究)

〈圖 34〉 革履(奈良朝服飾の 硏究)

〈圖 35〉 錦履(奈良朝服飾の 研究)

平安前期의 「廷喜式」의 기록에 보면 公事公會에 文官과 五位 以上의 武官은 靴를 신도록 정하고 있으며, 皮靴이었던 것이 후에는 木製의 黑칠을 한 淺沓으로 바뀐다. 이 당시의 天皇 및 皇太子, 女帝의 禮服에도 烏皮舄을 착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諸臣의 禮服에서는 靴를 착용한다. 이제 前代까지 朝服이라 부르던 公卿의 通常出仕服을 束帶로 부르게 되며 束帶服裝에는 履를 신기 시작한다.(太田臨一郎, 平成元年)

이들 公家의 束帶에서의 신발은 靴로 되었고 이 靴는 원래 黑色의 淺香을 말한다. 儀式의 경우에는 靴를 착용하였다. 이 靴는 革製로서 위에는 薔薇錦이라는 花文으로 짜서 나타낸 錦을 붙이고 있다. 이것은 奈良시대의 武官이 사용한 錦의 행전이 형식화하여 남아있는 것을 말한다.(山邊知行, 1962) 또 이 신목을 묶는 靴帶라 하는 革紐가 부속되어 있다. 승마에는 이 靴帶를 생략시킨 半靴가, 雨雪에는 深沓이 착용되었다. 材質은 모두 흑칠을 한 가죽이다.(北村哲郎, 1973) 이 시기의 서민은 대개 맨발, 草鞋, 게다(下駄) 등을 착용하고 있다.

鎌倉시대에서 신에 대한 기록은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다만 이 당시의 풍속화에서 보면 맨발 혹은 鞋 또는 게다의 모습이 간혹 보이고 있다.

Ⅳ. 東·西洋신발의 비교

신발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 실용적인 목적으로 발생되어 고대·중세를 지나면서 새로운 형태가 개발되고, 다양한 재료의 사용 및 장식 등으로 변화·발전된 유형들을 볼 수 있다.

신발은 발 등을 노출하느냐, 발등을 싸느냐에 따라 개방성 신발과 폐쇄성 신발로 나누어지며, 양자의 중간형도 있다. 또한 재료·성별·연령별·용도별·디자인별로 분류된다. 본장에서는 동·서양신발의 각기 발달된 형태를 바탕으로 그 기본형을 분류하여 종류를 살펴보고, 동·서양신발에 나타난 계층표식을 비교하였다.

1. 동·서양신발의 종류

1) 서양

서양은 발등을 거의 노출시키고 끈으로 묶거나 밴드로 고정시키는 형식의 샌달, 발 등을 덮는 폐쇄형식의 구두(shoes), 발목위로 올라오는 형식의 부츠로 구분하였다.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이집트의 샌달은, 이집트의 기후 조건상 熱砂에서 발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래와 발을 격리시키기 위해 한 장의 판자를 발바닥에 대고 끈으로 고정시킨 간단한 구조의 것이었다.

앗시리아에는 굽달린 샌달이 있었고, 그리스는 샌달이 발달하여 크레피스와 버스킨이 나타났는데 색상도 다양하고 자수나 금으로 장식되었다. 로마시대는 더욱 발달되어 끈을 묶는 방법이나 장식 등의 정교함에 의해 사회적 신분이 표현되었다.

복식사상 구두의 시초는 구두창이 없고 발을 모두 감싸는 형태의 모카신에서 볼 수 있는데 메소포타미아와 크레타에서 이미 존재하였고, 크레타에서는 굽달린 구두를 신었다. 특징적인 구두는 그리스시대 코우더너스로 7.5㎝나 되는 두꺼운 콜크창을 댄 구두이며 현대의 통굽구두와 유사하다. 비잔틴시대의 구두는 발목까지 오며, 발등은 노출되어 끈으로 묶는 형태로 색상이 다양하고 보석장식 등으로 화려하다. 고딕시대의 대표적인 구두인 뿔렌느의 앞부리는 경쟁적으로 길어져 법령으로 길이를 규제한 일도 있으며 그 끝은 뱀의 꼬리·물고기꼬리 등의 기발한 형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또한 구두는 아니지만 부드러운 크랙코우를 보호하기 위한 나막신인 패튼을 덧신었음을 볼 수 있다.

부츠의 형태를 보여주는 것으로는 시리아에서 발굴된 진흙모형(B.C. 3000년경)이 있는데 이 모형은 끝이 위로 구부려진 형태이다. 끝이 올라간 형태는 메소포타미아의 악카드 시대에도 보이고, 앗시리아의 호전적인 군인들

모습에도 보이는데 부츠의 전체적인 형태는 신발목이 길고 다리에 꼭 맞게 앞에서 끈으로 엮은 모습이다. 그리스와 로마시대에는 발가락이 노출되고 다리에 꼭 맞게 끈으로 조여 매는 목이 긴 부츠가 유행되었다. 특히 로마의 캄파구스는 화려한 색조에 동물의 머리나 팔다리가 장식되어진 것도 있다. 고딕시대에는 일반적인 구두와 마찬가지로 부츠도 역시 앞 끝이 뾰족하게 길었다.

2) 동양

동양의 신발은 형태적인 면에서 보면 운두가 없는 短靺의 履와 長靺의 靴로 구분되는데, 나무로 된 屐은 삼국(중국·한국·일본)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신겨지므로 기본형을 履, 靴, 屐의 3가지로 구분하였다.

履는 周 나라 때 이미 재료와 색상 및 바닥이 홑(單底)인지 겹(複底)인지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었으며, 그 종류에는 舄, 鞋, 屣, 屐, 屧, 蹻, 沓 등이 있다. 중국의 履에 나타난 특징으로 唐代에 履는 신의 앞 부리가 高頭, 平頭, 小頭, 云形, 花形, 重台, 如意 등의 여러 양식이 보이며, 宋代에는 纏足 풍습이 만연하여 신발의 크기가 매우 작다. 이러한 纏足 풍습은 근대에까지 계속되었다.

삼국이 모두 草履, 草鞋, 草蹻 등의 명칭으로 草를 재료로 履를 제작하였으며, 이는 서양의 샌달과 같이 발가락이 보이고 끈으로 엮었다는 점에서 공통되나, 서양이 발의 형태에 맞게 끈으로 발등에서 조여 매는 形이라면 동양은 끈으로 신발의 形을 미리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履의 形을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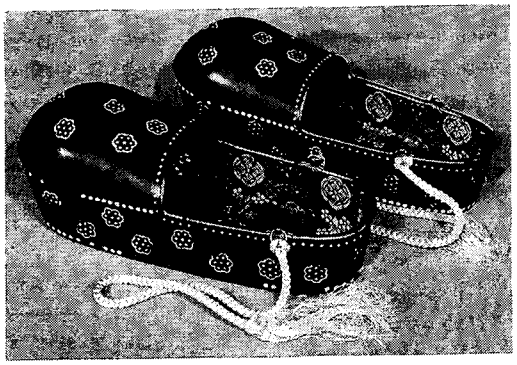
履의 또 다른 형태로 한국의 삼국(고구려·백제·신라)에서 공통으로 출토된 金銅履가 있는데, 신발바닥에는 못이 박혀 있으며 신코가 솟고 앞바닥이 들려진 형태이다. 일본의 滋賀縣 稻荷山고분과 熊本縣 船山 고분에서도 한국의 금동리와 매우 흡사한 신발이 출토되었다(圖37 참조). 이는 고대 일본이 한국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靴는 中華古今注에 '옛 西胡制로서 趙의 武靈王이 常服으로 삼았다'고 하여 靴의 원류를 西胡, 즉 스키타이계통이라 한다. 우리 나라는 이 시대의 유물이 없어서 언제부터 신발을 신었는지, 靴나 履 중에 어느 것이 먼저 발생하였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스키타이계 의복과 함께 들어와 먼저 착용된 것은 靴형이었을 것으로 보고있다. (유희경, 김문자,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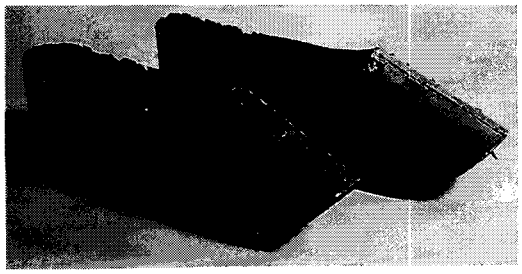
3세기말까지 주로 맨발이었던 일본에도 중국과 한국의 영향으로 靴가 도입되었는데, 직급이 높은 武官의 禮服用으로 착용되었다.

나무로 만든 屐은 2개의 굽이 있는 형태이고, 고대 중국에서 귀천의 구분 없이 착용되었으며 춘추시대에 유행하였다. 한국에서도 일반인들의 신발에 履형의 屐(木履)이 사용되었다. 일본에서는 屐이 두 가지 형으로 구분되는데, 飛鳥시대 남자 귀족들의 신발로 '屧形의 칠을 한 木履'가 있고, 서민들이 착용하는 슬리퍼 형태의 게다(下駄)가 있다. 일본에서 木履의 사용을 보여주는 특징적인 것으로 〈圖36〉의 예장용 舄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근세의 것이지만 천황 裝束類에 속하는 것으로 예복의 색에 맞추어 붉게 칠이 되어 있는데, 그 이전부터 木履가 귀하게 사용되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동·서양의 신발의 종류를 형태적으로 비교할 때, 서양의 샌달·구두와 동양의 履, 서양의 부츠와 동양의 靴가 구조적으로 유사한 점도 있으나 큰 차이점이 있었다.



〈圖 36〉 禮服舄(木履), (日本の 美術 26)



〈圖 37〉 熊本縣 船山 고분 출토 金銅製飾履 (日本の 美術 371)

즉 서양은 신발 자체가 발의 형태에 맞게 끈으로 조여 매어 발에 밀착된 것인 반면, 동양의 신발은 타원형으로 일정한 형태를 이루어 이에 발을 맞추는 형식이 된다. 서양은 샌달이 발달된 데 비해 동양은 草나 麻를 재료로 한 履가 샌달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

서양에서는 나무로 만든 신발이 거의 없었으나, 동양에서는 木履를 많이 신었다. 특히 일본에서는 예복용으로 사용될 정도로 木履의 사용이 많았고, 그중 게다는 오늘날까지 착용되고 있다.

2. 동·서양 신발에 나타난 계층표식

고대 身分制 사회, 또는 封建國家에서 복식은 색상·직물·문양·장신구·착장 양식 등을 통해 지배계층의 위용과 권위를 드러내고 신분의 可視化를 꾀하는 수단으로서 秩序의 표상이었다. 사회 안에서 복식을 통한 계층구분이 어려워질 때는 지배계급이 上位階層과 下位階層 및 階層의 等位를 뚜렷이 하기 위해 계층에 따라 착용복식에 대한 규제를 가하는 등 강제성을 갖게 되고 이는 服飾에 대한 禁制로 까지 나타나게 된다.

복식의 한 요소인 신발에 나타난 계층표식을 동양과 서양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집트는 상류계층에서 샌달을 사용하였고, 왕과 귀족의 것은 신발의 앞 끝이 뾰족하게 올라갔다. 왕의 샌달에는 금장식이 있으며, 왕의 신발바닥에는 적의 그림이 그려진 것도 있다.

앗시리아의 왕과 상류계층의 남자들은 굽달린 샌달을 착용하였고, 하류층은 대개가 맨발이었다.

크레타의 상류계층 신발은 구슬로 장식된 끈으로 매는 사치스러운 것이었다. 그리스에서는 노예는 항상 맨발이고 철학자들은 장식 없는 샌달, 상류계급은 부드러운 가죽을 사용하거나 자수 혹은 금으로 장식했다.

로마는 신발을 중요시하였고 신발의 재질, 묶는 방법이나 색상, 장식 등의 정교함에 의해 신분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귀족의 신발은 아름다운 색조에 복잡한 모양과 보석장식 등으로 화려하였다.

비잔틴시대는 보석이나 금, 자수 등의 신발장식에서 계층을 나타내는데 왕실에서는 자주색을 주로 사용하며, 보석장식 등으로 매우 화려하다.

로마네스크시대 역시 신발의 재료와 장식에 의해 귀족의 것은 화려하였다. 고딕시대는 뿔렌느의 뾰족한 앞부리의 길이가 신분을 나타내며, 법령으로 길이를 규제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해 동양은 삼국이 공통적으로 公服制度에 의하여 신발의 사용규제가 세밀하게 구분되어 있다. 중국은 周나라 때 이미 冕服 착용 시에 赤舄을 신고, 舄에서는 玄, 青, 赤의 순으로 높다고 하였다. 舄은 삼국에 공통되는 명칭으로 祭服 전용의 신발이며, 바닥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가장 의례적인 신발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춘추전국시대에서 보면 상류사회에서는 舄, 履, 絲履, 韡 등이 착용되었는데, 일반서민은 麻履, 草履, 木履 등을 착용하였다. 이와 같이 신발의 재료에 의한 계층구분은 그 이후로도 계속되는 현상으로 한국과 일본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長靴의 韡(靴)는 농민을 비롯한 일반서민은 거의 사용하지 못했으며, 이 역시 삼국에 공통된 현상이다.

한국의 조선시대에는 신분제도가 엄격해지면서 신분에 따라 착용하는 신발의 구분이 형태나 재료 면에서 뚜렷해졌고, 신발의 재료에 대한 구체적인 禁制까지 내려졌다

일본은 중국과 한국에 비해 신발의 출현이 늦었으나, 그 기본 유형은 중국·한국과 유사하며 재료에 의한 신분구분이 나타난다. 중국과 한국에 비해 木履에 칠을 하여 신분이 높은 관직자들의 예장용 신발로도 착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동양의 신발은 대부분 재료에 의해 신분을 나타내는데, 귀족이나 상류층들은 皮, 絲, 錦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자수나 구슬 장식을 하는데 비해, 일반서민들은 麻, 草, 木 등을 사용하거나 맨발이었다.

V. 결 론

본 연구는 동·서양 신발의 비교 연구로, 동·서양 신발의 기원 및 시대적 변천에 따른 신발의 유형과 특징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동·서양 신발의 종류와 신발에 나타난 계층표식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지역적인 광범위함으로 인하여 시대는 고대에서 중세(15세기)까지로 한정하였으며, 고찰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신발은 동·서양 모두 이미 수 만년 전에 발생하였으며 짐승가죽으로 발을 감고, 가죽끈으로 돌려 묶어 싸맨 형태로 신발만의 형태보다는 신발과 양말이 연결된 靴와 유사한 형태였다.

신발의 유형은, 서양에서는 발등을 거의 노출시키고 끈으로 묶거나 밴드로 고정시키는 형식의 샌달, 발 등을 덮는 폐쇄형식의 구두, 발목위로 올라오는 형식의 부츠로 구분되며: 동양의 신발은 短靷의 履와 長靷의 靴, 나무로 된 屐으로 구분된다.

동·서양의 신발의 종류를 형태적으로 비교할 때, 서양의 샌달·구두와 동양의 履, 서양의 부츠와 동양의 靴가 구조적으로 유사한 점도 있으나 큰 차이점이 있었다. 즉 서양은 신발 자체가 발의 형태에 맞게 끈으로 조여 매어 발에 밀착된 것인 반면, 동양의 신발은 타원형으로 일정한 형태를 이루어 이에 발을 맞추는 형식이 된다. 서양은 샌달이 발달된 데 비해 동양은 草나 麻를 재료로 한 履가 샌달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

한국(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공통적으로 출토된 金銅履는 신발 바닥에 못이 박혀 스파이크 형식이며 신코가 솟고 앞바닥이 들려진 형태인데, 일본의 고분에서 발견된 金銅履(飾履)는 우리 것과 유사하여 고대 일본이 한국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보여준다.

서양에서는 나무로 만든 신발이 거의 없었으나, 동양에서는 木履를 많이 신었다. 특히 일본에서는 예복용으로 사용될 정도로 木履의 사용이 많았고, 그중 게다는 오늘날까지 착용되고 있다.

동·서양 신발에 나타나는 계층표식을 보면, 서양은 주로 보석이나 자수 등의 신발 장식으로 신분의 차이를 나타냈는데, 특이한 것으로 로마는 신발을 묶는 방법에 의해서도 신분구별이 되고 있다. 또한 로마네스크와 고딕시대에는 신발의 뾰족한 앞 부리의 길이가 신분을 나타냈으며 법령으로 그 길이를 규제하기도 하였다. 동양은 삼국이 공통적으로 일정한 公服制度에 의하여 신발의 사용규제가 세밀하게 구분되어 있는데, 대개는 재료에 의해 신분을 나타내며, 색상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복식의 한 요소인 신발에 표현되는 차이는 동양과 서양의 다른 환경에 따른 문화적 현상의 가치기준의 차이로 발생되었음을 볼 수 있었으며 앞으로 이를 보완하여 근세, 근대까지 비교, 연구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1. 김기업(1985). 고딕시대의 남녀복식에 관한 연구. 홍익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金基雄(1989). 고구려 고분 벽화. **한국의 미술 1**. 서문당, 서울
3. 金用淑(1963). 宮中撥記의 硏究. **향토서울 18**
4. 金芝嬉(1987). 우리 나라 신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박경자(1983). **韓國服飾論攷**. 신구문화사, 서울
6. 석주선(1982). **속 한국 복식사**. 고려서적, 서울
7. 신상옥(1991). **西洋服飾史**. 수학사, 서울
8. 유희경, 김문자(1998). **한국복식문화사**. 교문사, 서울
9. 李京子(1985). **韓國服飾史論**. 일지사, 서울
10. 李如星(1945). **朝鮮服飾考**. 白楊堂, 서울
11. 이은창(1978). **한국 복식의 역사**.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서울
12. 李春珪(1995). 正倉院의 服飾과 染織. **한국복식 13**
13. 이현주(1988). 고대 그리스와 신고전주의 시대의 여자 복식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4. 이혜영(1984). 中世末期 西洋服飾의 特性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 任明美(1992). 蒙古服飾. 耕春社, 서울
16. 정흥숙(1997). **서양복식문화사**. 교문사, 서울
17. 조선희(1997). 東北 아시아 신 文化에 關한 硏究. 성신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8. 조순옥(1981). Rococo 時代의 여성 복식에 관한 연구. 홍익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 황호근(1980). **韓國裝身具美術硏究**. 일지사, 서울
20. 국립중앙박물관編(1991). **국립중앙박물관**. 통천문화사, 서울
21. **東史綱目**
22. 세종대왕기념사업회(1969). **세종장헌대왕실록 6**. 서울
23. **世宗實錄**
24.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1999). **澹人服飾美術館**
25. 韓國文化財 保護協會(1982). **韓國의 服飾**

26.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6). **譯註 經國大典**
27. 鷹司綸子(1991). **服裝文化史**. 朝倉書店, 東京
28. 關根眞隆(1974). **奈良朝服飾の研究**. 吉川弘文館, 東京
29. 丹野郁(1973). **西洋服飾發達-古代·中世編**. 光生館, 東京
30. 北村哲郎(1973). **日本服飾史**. 衣生活研究會
31. 山邊知行(1973). 公家の服飾. **日本服飾美術展**. 東京國立博物館
32. 杉本正年(1981). **東洋服裝史論攷-古代編**. 文化出版局, 東京
33. 杉本正年(1984). **東洋服裝史論考-中世編**. 文化出版局, 東京
34. 杉本正年, 井上泰男, 松本敏子(1985). **東西の 服裝史**. 衣生活研究會, 東京
35. 松本包夫(1984). **正倉院裂と飛鳥天平の染織**. 紫紅社, 東京
36. 原田淑人(1967). **增補漢六朝の服飾**. 東洋文庫, 東京
37. 元井能(1972). **日本·西洋被服文化史**. 光生館
38. 林巳奈夫編(1976). **漢代の文物**. 京都大學科學研究所, 京都
39. 井筒雅風(1986). **日本女性服飾史**. 光林社
40. 酒井憲一(1995). 都市と環境. 衣生活 38(4). 衣生活研究會, 東京
41. 太田臨一郎(平成元年). 日本 服制史-上. 文化出版局, 東京
42. 日野西資孝編(1968). 服飾. **日本の 美術 26**. 至文堂, 東京
43. 町田章編(1997). 古墳時代の 裝身具. **日本の 美術 371**. 至文堂, 東京
44. 江水(1991). **中華服飾文化**. 山西人民出版社, 北京
45. 駱崇骐(1990). **中國鞋文化史**.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上海
46. 沈從文(民國 77). **中國古代服飾研究**. 南天書局有限公司, 臺北
47. 楊志謙, 張臣杰, 抗關革, 王名吋(1979). **唐代 服飾資料選**. 北京市工藝美術研究所, 北京
48. 王宇淸(1976). **中國服裝史綱**. 中華大典編印會, 臺北
49. 袁杰英(1994). **中國歷代服飾史**. 高等教育出版社
50. 莊甲(1994). 唐代 婦女的 服飾. **明報 94**
51. 周錫保(1984). **中國古代服飾史**. 中國印刷出版社, 北京
52. 華梅(1989). **中國服裝史**. 天津人民美術出版社, 天津
53. **舊唐書**
54. **大東野乘**
55. **三才圖會**
56. **隋書**
57. **周禮**
58. 陝西省博物館編(1990). **隋唐文化**. 學林出版社, 香港
59. 吐魯番博物館編(1992). **吐魯番博物館**. 新疆美術攝影出版社, 烏魯木齊
60. Bigelow, M.(1970). *Fashion in history*. Burgess Publishing Co., Minneapolis
61. Boucher, F.(1987). *A history of costume in the west*. Thomas & Hudson, London
62. Mcdowell, C.(1989). *Shoes-fashion and fantasy*. Rizzoli International Pub. Inc.
63. Payne, B.(1965). *History of costume*. Harper, New York